

다니엘서 - 번호 142

짐승의 우상의 형성: 베일이 벗겨진 예언적 여정

Jeff Pippenger

2024-03-17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큰 시험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일은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의 일요일법령이 시행될 때까지 진행된다. 그 예언적 기간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를 나타내며, 모든 성경의 이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기간이다. 그 기간에 참된 개신교의 별은 정결하게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니, 그리스도는 개신교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개신교도였다. 그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유대 민족의 형식적인 예배에 항의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며 사칭자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다. 개혁자들의 기원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나와서 형식과 의식의 종교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개혁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길잡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황과 그의 일꾼들은, 성경이 그들의 가장을 폭로하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꾸짖기 때문에, 마치 저주인 양 그것을 백성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년 6월 1일.

인치는 시기에, 개신교의 별은 정결하게 되고 정화된다. 같은 시기에 배도한 공화주의의 별이 배도한 개신교와 연합하여, 교회와 국가가 결합된 권세의 별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땅의 짐승의 두 별은 곧 짐승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 배도의 별은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국가 사이의 이중 관계이고, 의의 별은 신성과 인성 사이의 이중 관계이다.

그 후 짐승의 형상이 세상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국가(유엔)로 대표되는 이중의 짐승이며, 그 국가는 땅의 짐승의 배교한 개신교를 자기의 열 머리 중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그 짐승 위에 음녀들의 어머니인 여자가 앉아, 열 왕으로 이루어진 그 짐승을 통치한다.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이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저지른 근친상간적 영적 음행으로 표상된다. 또한 그 짐승을 다스리는 여자와의 관계도 교회와 국가의 결합인데, 유엔을 가리키는 전 세계적 짐승을 구성하는 왕들과 로마의 음녀가 맺는 불법적 관계로 드러난다. 온 세상에 강요되는 그 짐승의 형상 안에는 모든 나라가 관여하게 될 것이며, 모든 부패한 권세들이 함께 결집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3-14 인용. '이들은 한 뜻을 가졌다.'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큰 조화, 사탄의 세력들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리라.' 이로써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거스르는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동일한 권세가 드러난다. 이는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주의의 종교적 의식과 예식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부한 자들을 박해했을 때 드러났던 것과 같다.

"말세에 벌어질 전쟁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배도한 모든 부패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제4계명의 안식일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안식일 계명에서 위대한 율법의 제정자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밝히시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8권, 983쪽.

전 세계적인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반역이 '보편적'이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배도한 모든 부패한 권세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이 배도한 모든 부패한 권세들의 통합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배도하였고,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1863년에 배도하였다. 배도한 개신교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자기들의 왕국의 절반을 내어주게 되는 공화주의라는 뿔 안에 있는 정치 파벌들과 함께, '연합의 유대'를 형성할 것이다.

짐승의 세계적 형상에서는 온 땅을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미국 안의 짐승의 형상에서도,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로 통합된 '사탄의 세력 연합'을 만들어 내는 존재 역시 '거짓 선지자'여야 한다. 짐승의 세계적 형상은 이중적이지만 동시에 삼중 연합이기도 하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삼중 연합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미국 안에서 먼저 형성되는 짐승의 형상에서도 반드시 삼중 연합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 짐승이다. 두 가지 짐승의 형상 모두에서 이중적 성격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며, 그 관계를 통제하는 것은 교회다.

삼중 연합은 두 짐승의 형상 모두에 나타나야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짐승의 세계적 형상의 삼중 구조는 심령주의(용), 가톨릭교(짐승), 배교한 개신교(거짓 선지자)로 나타난다. 이들 셋은 심령주의·가톨릭교·배교한 개신교라는 종교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지닌다. 용(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짐승(군주제), 거짓 선지자(공화제로 시작하여 민주제로 끝남).

미국에서 결집하는 그 삼중 연합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강제로, 즉 속임으로 묶이며, 짐승의 전 세계적 우상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배교 세력으로 식별되는 또 다른 삼중 연합이 있다. 17장에서 가톨릭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며, 그것은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삼중 연합의 짐승에 해당한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볼 때 놀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8.

제11장에서 무신론의 용의 권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1:7.

9장에서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이 있었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렁이에서 큰 풀무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올라오고, 그 구렁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더니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9:1-3.

하늘에서 떨어져 무저갱을 연 그 별은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였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메뚜기'로 묘사된 이슬람의 전사들을 말세의 예언적 서사 속으로 도입했다. 무저갱의 삼중 연합은 용(무신론), 짐승(가톨릭), 거짓 선지자(이슬람)로 이루어져 있다. 짐승의 전 세계적 형상에서,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다. 그 거짓 선지자는 살로메의 유혹적인 춤이나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의 춤으로 온 세상을 미혹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는 짐승 앞에서 행하는 이적들로 세상을 속인다. 그러한 기만의 상징적 표현들은 경제적 갈취와 군사적 위력을 가리킨다.

그는 큰 기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또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표적들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며,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또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게 하였다. 그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13:13-17.

거짓 선지자와 연관된 기만과 이적은 실제로 경제적 힘(아무도 사고팔 수 없게 함)과 군사적 힘(죽임을 당하게 함)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이 나라들에 분노와 고통을 일으키는 활동을 상징한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그러한 분노와 고통을 일으키는 일을 수행하며, 성경은 그들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밝힌다. 이슬람의 전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미국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배교한 모든 부패한 권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쟁점이다.

십자가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된 개신교의 뿌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함께 모이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완전히 "배교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라바를 선택했다. "바르"는 아들을, "아바"는 아버지를 뜻한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셨고, 바라바는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었다.

십사만 사천인의 인치는 때에 땅의 짐승의 두 뿌를 그들의 최종적인 예언적 나타남의 시점에 이른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하나는 짐승의 형상을 대표한다. 이 두 뿌리가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배도한 개신교는 2001년의 애국법으로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 이정표는 독립선언서와 상응하는데, 독립선언서는 시작할 때 어린양처럼 말했으니, 이는 왕권과 교황주의적 지배에 맞선 개신교의 항의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끝에서 그것이 상응하는 이정표(애국법)는 개신교의 억압을 표현한다.

인봉 기간 동안 두 뿔의 여정에서 두 번째 이정표는 처음에 두 권력의 분리를 성문화한 헌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땅의 짐승의 힘이다. 그 이정표는 끝에서는 2021년 1월 6일 청문의 '캥거루 법정'이라는 상응점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정치적 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가 무시되었다.

두 뿔의 마무리 여정에서 마지막 이정표는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이며, 그 시작은 Alien and Sedition Acts로 예표되었다. 따라서 초기 역사상의 세 가지 이정표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어린양(1776)이 대표하는 독립과 자유에서 용(1798)의 속박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인치는 때의 세 가지 이정표는 거짓 선지자인 땅의 짐승의 마지막 여정을 가리킨다. 그 여정은 기치가 들려지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끝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땅의 짐승의 마지막 세 단계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짓 선지자의 여정이다. 참된 선지자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땅의 짐승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곧 땅의 짐승)로서 그는 발람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발람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고 참된 선지자로의 부르심에서 돌아섰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배교하였다." 그는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 때에 미국이 하게 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발람의 여정은 나귀를 타고 이루어졌으며, 그 여정 동안 발람의 나귀가 발람에게 괴로움을 준 일이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에는 나귀가 길을 벗어났다.

나귀가 길에 서서 손에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때려 길로 돌이키려 하였다. 민수기 22:23.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 성경 예언의 사나운 아라비아 들나귀가 발람을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서 "전환점"이었다. 길에 서 있던 그 천사는 그때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힌 힘센 천사였다. 그 나귀는 다시 한 번 발람에게 근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길에 섰는데,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담 쪽으로 몸을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렀고, 그는 다시 나귀를 때렸다. 민수기 22:24, 25.

2001년 9월 11일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의 노래(이사야 27장)의 메시지를 노래해야 했는데, 그것은 현재 발람이 있는 곳, 곧 이쪽에도 "벽"이 있고 저쪽에도 "벽"이 있는 곳이다. 미국 남부 국경의 "벽"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정표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이 무너지는 일에 앞서 제기되는 쟁점이다. 남부 국경의 "벽" 문제는 발람의 "발"이 짓눌리는 지점이며, 시민전쟁의 반복에 앞서 이민을 둘러싼 내부 전쟁이 땅의 짐승을 두 개의 대립하는 진영으로 분열시키기 시작한다.

두 벽 사이의 역사는 1789년부터 1798년까지의 헌법이라는 이정표로 대표되는 역사로서, 이는 트럼프가 "장벽 건설"을 강조하며 대통령직 출마를 선언했던 2015년의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이 정교 분리의 벽을 제거할 때까지 이어진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발람으로 표상되는 땅의 짐승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발람의 두 벽의 분리는 땅의 짐승의 두 뿔 안에 있는 두 부류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 2020년 두 증인의 죽음, 2021년 1월 6일의 펠로시 재판들, 2023년 두 증인의 부활,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나귀가 발람을 불구로 만든 사건으로 표상된다.

발람의 여정의 마지막 이정표는 나귀가 '말할' 때이며, 그 시점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다시 말하며, 지체되어 온 하박국의 묵시가 말하는 때,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때이다. 지체되었던 그 묵시는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에 관한 묵시였으며, 그것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그 난폭한 행위로 들나귀처럼 말한다.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암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앞드리니, 발람이 노가 치밀어 지팡이로 암나귀를 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암나귀의 입을 여시매, 암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암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지금 너를 죽였을 것이다. 암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것이 된 날부터 오늘까지 줄곧 당신이 타던 당신의 암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가 이르되, 없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 들고 길에서 있는지라. 그가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앞드리니라. 민수기 22:26-31.

미국은 전 세계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이다. 미국 안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발람의 암나귀로 표상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끌린다. 14만4천이 인치는 때에 미국의 그 모든 부패한 권세들을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함께 모이도록 강요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다.

그것은 전쟁과 그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 붕괴를 통해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미국의 거짓 예언자가 무저갱의 거짓 예언자가 미국에서 행한 일을 되풀이할 때 전 세계를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동일한 힘이다.

미국은 지금 1798년 외국인·치안법의 핵심이었던 장벽(이민) 문제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완전히 제거될 정교분리의 장벽 사이에 서 있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으며, 국가 부채는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용의 권세가 현재 거짓된 금융 전망을 떠받치고 있지만, 인쇄기로 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결국 성경 예언에서 용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히틀러의 유명한 선전 기계의 현대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을 유포하며, 이로써 외국인·치안법의 네 번째 요소가 반복되도록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그 요소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상에 반대하는 어떤 언론 매체든 폐쇄할 권한을 부여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일의 시작으로 드러내신다. 미국에서의 짐승의 우상은 전 세계적 짐승의 우상과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지녀야 하며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거짓 선지자 안에서 타락한 동맹을 낳는 속임수는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이다. 발람과 나귀 둘 다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다.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는 세 가지 무저갱 권세의 역사이다. 무저갱에서 나온 이슬람은 2001년 9월 11일의 첫 번째 이정표이다. 무저갱의 무신론은 2020년에 두 증인을 죽이려 일어나며, 무저갱의 가톨릭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세상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 남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할 것이다. 선과 자비와 지치지 않는 사랑을 지니시고, 인간의 고통에 늘 마음이 움직이셨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택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억제하는 능력이 거두어지고 사람들이 배교자의 지배 아래 놓일 때 인간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사탄을 그들의 통치자로 택하는 자들은 그들이 택한 주인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때까지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은 흘러진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살해된 자들을 덮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택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교회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배반과 배척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장면들이 재연되어 왔고, 앞으로도 거대한 규모로 다시 재연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미혹이 큰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빛을 거절하는 만큼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하는 자들은 파멸적인 미혹 아래서 행동한다. 고향과 거짓 증언이 커져 공공연한 반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지도자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은 몸과 혼과 영까지 지배하는, 너무도 현혹적인 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그 권세 아래서 영혼들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 거짓을 믿게 된다. 그들은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이렇게 외친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 주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지금도 이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에서 떠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닐 때 인간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게 되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도 놀랄 필요가 없다. 어떠한 끔찍한 전개에도 경악할

필요가 없다. 불경건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배반했던 자들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질문을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들 안에서 배반당하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년 1월 30일.